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8호【루게 제24916호】주제104(2015)년 5월 18일(월요일)

사설

##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불사르고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된 때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평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루어지고 창조와 변혁의 눈부신 현실이 펼쳐졌다.

당의 전투적소호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사상적대, 정책적대도 확고히 하고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있으며 대중의 심금을 팡팡 울릴수 있는 명작들이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이 쏟아져나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당에 충직한 혁명적문학예술인들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이후 한해동안 높은 창작에 열성과 더불어 시대의 기수, 혁명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그러나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당과 혁명,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좋은 명작들이 팡팡 쏟아져나오지 못하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천만군민이 노도처럼 질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문학예술부문이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정신으로 다시한번 분발하여 새 세기 문학 예술혁명의 토성을 하루빨리 힘차게, 드높이 울려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을 주체사대위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밝기와 지도속에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는 주체문학 예술발전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힘찬 맥동과 활력을 부어준 의의있는 역사적대회였다.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 《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의 강령적지침이고 백과전서적인 교과서이다. 오늘날 우리 문학예술인들의 당에 대한 충성도, 조국에 바치는 애국심도, 인민에 대한 사랑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투쟁에서 쌓은 실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조선인민군 제5사 훈련일군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무대에서 울려 퍼진 《가리라 백두산으로》,《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인정의 세계》,《내 마음》,《천리라도 만리라도》,《행복의 레일》과 같은 모란봉악단의 새 노래들, 모란봉악단이 또다시 펼친 참신하고 특색있는 공연은 우리 문학예술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감정정서도 어떻게 같이해

나가야 하는가를 심각히 깨우쳐주었고있다.

모란봉악단처럼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판결하자, 이런 각오를 지니고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들끓는 현실은 백두의 칼바람에 뚫을 달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질풍같이 전진하는 총진군대오의 맨 앞장에서 우리 문학 예술인들이 진격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내달릴것을 바라고있다.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쓸어버리고 하루빨리 명작폭포를 안아올려서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주체문학예술인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문학예술부문에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은 곧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결사전이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과업을 주시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집행해내고야마는 인민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모란봉악단의 투철한 창조정신으로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의 사상과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다시 한번 대세차게 일으켜 명작창작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당정책의 철저한 체현자가 되어야 투철한 관철자가 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새 세기 문학예술발전의 고귀한 지침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우리 문학예술을 하루빨리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시려는 드립 없는 의지가 어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서한의 구절구절을 깊이 학습하여 그 기본정신과 내용을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몇번 외우고 문단식학습경연을 한두번 했다고 하여 서한의 정신으로 무장했다고 말할수 없다.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로부터 예술단체의 마지막 총집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자자구구 새겨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한번 총열기해 나셔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서한에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벌어지고가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영화부문, 문학

부문, 무대예술부문 등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는 서한의 사상에 비추어 지난 1년간 창조사업정형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에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가 명명백백히 제시되어있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상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의 침체는 사상적침체이며 예술창조에서의 제자리걸음은 사상적 안일성의 표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타깝게 기다려도 시대를 대표할만 한 걸작, 인민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이 나오지 못하는 예술창조의 침체는 온 나라를 투쟁열, 혁명열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온밤을 새우면서 창작의 펜을 달리고 손끝이 갈라터지면서도 악기를 놓지 않는 이들의 결사관철의 창조기풍은 언제나 새로운 공연무대를 펼치고 훌륭한 명작들을 낳고있다.

지난 2월부터 막을 올렸던 예술공연《추억의 노래》의 출연자들이 발휘한 진할줄 모르는 예술활동은 오늘날 우리 새 세대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위대한 장군님 시대혁명적문학예술의 투쟁정신과 창조기풍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접 말하시기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어 완성된 뜻깊은 예술공연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에게는 70, 80나이의 년로한 예술인들도 있었지만 총정의 일원단성과 불같은 열정을 안고 70여회의 공연을 보장함으로써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이 어떤정인가를 말로만 들어오면 새 세대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차리고 공연을 본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칠 총정의 결의를 다지었다.

예술적대능이 왕성한 열기를 뛰여넘어 당과 인민의 기대에 결사관철, 필사복무로 대담해나서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예술공연《추억의 노래》의 출연자들의 정신세계는 오늘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모두가 지나야 할 커다란 줄기이다. 들끓는 현실을 무대로 삼고 광범한 대중속에 뛰어들어 명작의 종자, 소재를 찾아내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공장과 농촌, 어촌들에 내려가 기쁨내, 흙내, 바다향기를 맡으며 로동자, 농민, 어로공들과 같이 일하고 고락도 함께 나누면서 시대의 진형들과 명작의 주인공들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자신들이 창작창조하는 모든 작품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군대와 인민의 절찬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는 투철한 정신력의 분출이며 결정체이다.

당에 대한 끝없는 총열성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해내고야마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의 로고를 버치시며 황금해의 력사를 펼쳐주시면서 《나만종가》와 같은 명곡을 내놓고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에 오르시면 백두산에 대한 명작을 창조하는 그런 결사관철의 총정이 곧 당과 혁명이 바라는 우리 시대 예술가의 실력이고 재능이다.

조국밖에 수놓아지는 전편의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가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불같은 창조적의 열정은 온 나라를 투쟁열, 혁명열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온밤을 새우면서 창작의 펜을 달리고 손끝이 갈라터지면서도 악기를 놓지 않는 이들의 결사관철의 창조기풍은 언제나 새로운 공연무대를 펼치고 훌륭한 명작들을 낳고있다.

지난 2월부터 막을 올렸던 예술공연《추억의 노래》의 출연자들이 발휘한 진할줄 모르는 예술활동은 오늘날 우리 새 세대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위대한 장군님 시대혁명적문학예술의 투쟁정신과 창조기풍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접 말하시기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어 완성된 뜻깊은 예술공연무대에 나선 출연자들에게는 70, 80나이의 년로한 예술인들도 있었지만 총정의 일원단성과 불같은 열정을 안고 70여회의 공연을 보장함으로써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이 어떤정인가를 말로만 들어오면 새 세대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공연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차리고 공연을 본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칠 총정의 결의를 다지었다.

예술적대능이 왕성한 열기를 뛰여넘어 당과 인민의 기대에 결사관철, 필사복무로 대담해나서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과 예술공연《추억의 노래》의 출연자들의 정신세계는 오늘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모두가 지나야 할 커다란 줄기이다. 들끓는 현실을 무대로 삼고 광범한 대중속에 뛰어들어 명작의 종자, 소재를 찾아내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공장과 농촌, 어촌들에 내려가 기쁨내, 흙내, 바다향기를 맡으며 로동자, 농민, 어로공들과 같이 일하고 고락도 함께 나누면서 시대의 진형들과 명작의 주인공들을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자신들이 창작창조하는 모든 작품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군대와 인민의 절찬을 받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

서 창작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악하게 실천하여야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받들어나간다는 혁명적 각오로 열백밤을 폐고 수백번을 고쳐서라도 완전무결한 걸작을 내놓는 결사관철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명작창작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예술창조사업은 전문창작가, 예술인만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예술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오늘날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주인공이며 참전자이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전우라는 자각을 안고 모두가 제일전초병이 되며 어로공이 되어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안아왔다.

오늘날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의 벽한 투쟁에서의 명작을 창작하는 창작가, 예술인, 이따로 있고 보장성원과 관리성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날의 명작창작전투의 당당한 성원이라는 긍지를 안고 있는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명작창조사업에 당사업의 모든것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문화성 당위원회를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서한의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문학예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당의 유일적평도체계를 세우는 사업,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문예정책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신 것으로 틀어쥐고 당사업의 모든 계기와 공정에 이것으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결과를 자기 단위의 명작창작실적을 놓고 총화짓는다는 관점에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로만 외우지 말고 예술창작창조사업을 창작가, 예술인들과 같이 책임진다는 밑장에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들어와 그들에게 창작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작품창작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중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사상,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여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정신력을 발동하여 명작창작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이 백두의 칼바람소리가 장쾌하게 울려나오는 작품, 《인민은 부르네

친군 그 이름》,《인민의 회화》,《인정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호모와 격정이 절절히 끓어치는 작품, 《내 마음》,《천리라도 만리라도》,《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걸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철주야의 로고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훌륭한 명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마음쓰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요양하고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영화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몸소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를 찾오시어 영화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였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이 가시는 어떤 식으로 엮고 선물은 어떤 상으로 써야 하는지도 세심히 주시면서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고계신다.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시간과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전진의 보폭을 따라세우며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쓸어버리고 하루빨리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난 1970년대에 문학예술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선두적인 우리 식의 예술창조정신인 만수대장정신이 창조되었고 대극장의 불빛이라는 시대가 태어났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열백밤을 폐고 몇백번을 고쳐서라도 기어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결사관철의 정신, 필사복무의 각오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참담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예술단체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10월의 대축전장에 훌륭한 명작창작성과를 안고 몇몇하게 들어서기 위한 창작경쟁, 실력경쟁, 집단대결의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시대의 명작은 모란봉악단이나 공훈국가합창단과 같은 몇몇 단체들에서만 창작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로만 외우지 말고 예술창작창조사업을 창작가, 예술인들과 같이 책임진다는 밑장에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들어와 그들에게 창작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작품창작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창작가, 예술인들중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사상,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여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정신력을 발동하여 명작창작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이 백두의 칼바람소리가 장쾌하게 울려나오는 작품, 《인민은 부르네

수리의 경주광장이 눈앞에 있다. 전체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며,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쓸어버리고 결사관철의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뜻깊은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스럽게, 몇몇이 들어서자.

【조선중앙통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로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릅답고 고상한 도덕기풍을 발양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적극 찾아낸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민주대창작사 미술가 리성일은 자신을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당의 청년전위로 준비할 열의밑에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용감 달려나와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열여제기만큼 힘있는 경제선동, 후방사업으로 일군대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고무하였다.

어버리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나라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해갈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 학생소년군정 로동자 백성력도 발전소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황해남도 해주시 양사동 녀맹원 조정춘은 새해 첫날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을 제일먼저 찾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황해남도육아원, 해주애육원에 문화기예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평안남도 평성시 무투2동 녀맹원 홍정숙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구현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낼일 일념을 안고 평안남도육아원, 평성애육원의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남포시 강서구역 세길동 녀맹원 김영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럽잖으리》 노래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드록 하기 위해 원아들에게 친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우리 사회의 고상한 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파시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조선인민군

국제사회계강조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손길아래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찬란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계에 높이 울리고있다.

민중광고신문《라브니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 진보적인류는 미국의 힘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나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히 그를 무력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 조선인민군을 선풍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선군으로 다져진 불멸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이바지하고있다.

로씨야신문《예제판》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의 혁명한 평도밑에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포악한 미제와 15개 추종국가들로부터 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3년간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무장간첩 《후에 블로》호사건, 《EC-121》대형 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제의 끊임없는 제 전쟁도발책들을 거절하며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영국선군정전구원회, 영국군주제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조선인민군의 위력은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비상히 강화되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한 평도밑에 조선인민군은 강위력한 무장장비와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갖추었다.

월남신문 《런던이 년전》은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에서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고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최정예강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도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고있다.《조국보위도 사회주의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것이 조선인민군이 들고나가고있는 구호이다. 도이쉴란드반제연단 인터넷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천출명장으로서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로 선군조건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에게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적과 김정일명도자의 전승평도업적과 선군평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원들을 끊임없이 찾오시어 전승의 력사, 선군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시고 탁월한 명군소로 조선인민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한층 강화하시였다.

또한 인민군인들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마시평스키장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황금해의 새 력사창조에서 선봉대가 되자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치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쫓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었다.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형범의 보고에 이어 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재경, 선장들인 최강근, 전형주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신것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

쟁에서련합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선봉적역할을 할것을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르세우며 사회주의증산경쟁열을 세차게지퍼울릴때 대한 문제, 세계적인 수산업의 발전추세와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과학기술적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대한 문제와 어로공들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줄때 대한 문제 등 기업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진 출어일수를 무조건보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어로공들이 물고기생산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자각을안고 어장의 주인공, 만민의 주인공이 되어 련합기업소앞에 제시된 수산물생산과제를 능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간직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온일남애와 버섯생산 등 종업원들의후방공급사업과 생활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

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며 대중을 기적과혁신으로 고무추동해야 할것이라고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치말씀을 심장애 새기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더 많은물고기를 잡아들임으로써 인민들의식생활개선에 적극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올 한마음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한 광명 적음